

“한국의 도서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

출협·출판연구소 공동주최 제3회 출판포럼

‘한국 도서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출판포럼이 지난 12월19일 출협 4층 강당에서 출판인들의 뜨거운 호응속에서 열렸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가 공동주최한 이날 출판포럼은 출판유통시장의 개방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면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인지 논의의 수위나 진지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밀도가 더했다.

이날 포럼의 핵심인 허창성(평화출판사 대표, 서울출판유통 회장) 손재완(한국서점경영연구원 원장) 김종수(한울 대표, 출협 조사연구담당 상무이사) 씨의 주제발표도 새로운 제안들로 눈길을 끌었지만, 김주팔(전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이두영(출판협동조합 전무) 강경중(「뿌리와 날개」 대표) 이철지(종로서적 대표) 씨 등 출판유통업계의 핵심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은 각각 반론, 의견개진, 새로운 제안 등을 내놓으며 논의를 더욱 알차게 했다.

출판인들의 협업·공동화가 실길

먼저, 손재완 원장은 ‘우리서점의 당면과제와 그 타개책’ 주제발표에서 현재 우리 서점은 내부적으로는 할인점의 등장, 도서대여점의 확산, 편의점과 같은 타업종의 도서판매, 홈쇼핑 시대의 도래 등 영업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휩싸여 있으며, 외적으로는 유통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다며 서점의 경우 과감한 ‘현대화’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서점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유통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구랍 19일, 출협 4층 강당에서는

한국출판유통의 미래를 염려하는

출판인들의 모임이 밤늦게까지 열렸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는 자리였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발제자·토론자들은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서로 교환하느라

논의는 자못 진지했고 토론회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열기에 휩싸였다.

① 현 15.7평에서 30~50평형으로 매장의 확장 ② 매입·매출·재고관리 등 과학적인 마케팅기법의 도입 ③ ISBN 등의 정착으로 서점전산화 ④ 매장 대형화 혹은 전문화·협업화·체인화 ⑤ 도서공급의 일원화 ⑥ 도서의 소량주문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③ ⑤ ⑥ 항처럼 출판유통의 현대화·과학화가 그 전제조건이 되거나, 거래의 표준화, ISBN의 무화, 마진을 조정 등 출판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 등 출판·유통·서적업계의 공동작업이 절실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음, ‘한국 도서유통 개선의 길’을 발표한 허창성 회장은 현 유통구조의 문제로 ① 한 책을 주문하면 12곳에서 책이 도착하는 유통경로의 중복성 ② 한 책이 수군데서 출판되는 중복출판의 문제 ③ 물적유통의 전근대성 ④ 밀어내기식의 송품 ⑤ 정산거래의 비민주화 ⑥ 무자료 거래 ⑦ 표준영업정책의 전무 ⑧ 재고



출판포럼 전경.

도서 처리기구 전무 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표준화 부족 ⑩ 유통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허사장은 이의 해결을 위해 출판사·도매상·서점 간의 ‘공동·협업화’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통을 크게 ‘물류센터’(포장, 보관, 수송, 하역, 정보)와 ‘유통센터’로 구분해 설명하고 그 둘을 합쳐 너른 개념의 유통으로 보았는데, 먼저 도매상간의 물류 협업을 위해 ‘도매협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 과정으로는 1단계: 물류센터의 공동확보, 2단계: CCI System 표준화와 포장의 모듈화, 하역의 기계화, 3단계: 공동수배송 등으로 공동화를 이룬다면 노무환경의 개선은 물론 새로운 이윤의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의 전제로 “물적·상적 유통에 출판사·도매상·서점간의 표준화된 영업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물류시스템의 구축과 이의 공동활용 방법이 가장 시급한 유통개선

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출판유통 전문가 양성하자”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김종수 사장은 네덜란드의 ‘센트럴북하우스’와 독일의 ‘코호, 네프 앤드 외팅거(KNO)’ 등 유럽의 도서유통시스템을 통하여 한국 도서유통의 미래를 살폈다. 그는 “외국의 유통업체는 독자적인 진출 또는 국내업체와의 합작 등을 통해 한국 진입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의 유통시장을 우리의 손으로 가급적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설령 외국 자본과 합작한다 해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필요조건은 ‘유통의 자동화’의 확보이고, 그것의 전제조건은 ‘자본의 확보’임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유통이 본받

출판정보가 변한다

뭔일이 단단히 생겼다

국내 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출판정보

구독료 안내

6개월 12만원

12개월 20만원

주1회 발행

고객서비스접수 : 271-0494

구 분 화요판

발행일 주 1회 목요일

내용 1 원고뱅크, 리서치 & 리서치, 발굴정보, 출판정보 데이터, 주간 베스트셀러 종합/분야별 목록, 신간정보, 기획칼럼, 광고모음, 보도자료 모음.

내용 2 미국, 일본 베스트셀러 목록, 출간계 동향, 베스트셀러의 뒷 이야기, 화제의 책, 화제의 작가, 분야별 신간안내, 신간목록

내용 3 신문정보(출판경향 및 판매, 동향, 출판업계 동정, 도서관 및 독자정보, 작가, 책정보 등)

내용 4 기획특집, 출판경영 및 마케팅, 베스트셀러 기획법, 출판광고 마케팅.

‘독서대상’ 대통령상에 서문석씨

독서새물결추진위 제정... 모두 123명 수상



서문석씨



김득순씨



남수현 어린이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가 공모한 제1회 ‘독서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20일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독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민독서생활화를 위해 제정된 ‘독서대상’의 첫째 수상자로는, “불리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학생·교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독서교육을 실시해 온” 충남 예산국민학교 서문석(45) 교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에, 국무총리상에는 대구 덕화여자중학교 김득순(44) 교사가, 역시 국무총리상에는 “독서후 느낌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표현력에서 월등”했던 서울 잠전국민학교 남수현(5학년) 어린이가 각각 뽑혔다.

이밖에 교사부문 은상(교육부장관상)은 서울 방학국민학교 유종문 교사 외 14명, 동상(교육감상)은 제주 신광국민학교 김선희 교사 외 14명, 특별상(추진위원장상·운평문화재단이사장상 외)은 대전 중리중학교 강기중 교사 외 14명이 수상했다. 한편 학생 부문에서는 은상(문체부장관상)에 천안 입장중학교 오미선(2학년) 외 14명, 동상(교육감상) 광주 효광여중 장옥선(1학년) 외 14명, 특별상(추진위원장상 외) 인천 만수북국민학교 배정아(6학년) 외 44명이다.

모두 123명의 이번 ‘독서대상’ 수상자들은 전국에서 응모한 2만2천5백여명 가운데

서 현장실시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대통령상 1천만원 등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푸짐한 상품이 수여됐다.

원로출판인 ‘사간회’ 송년 모임



원로 출판인들의 모임인 사간회(회장 최원식)가 구랍 13일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여느해와는 달리 오찬으로 마련된 이번 송년모임에는 정진숙(을유문화사)·조상원(현암사)·이대의(장왕사)·이경모(통문관)·김성수(법문사) 회장 등 원로출판인들을 비롯, 김낙준 출협회장 등 출협집행부와 중견출판인들 40여명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흐트한 시간을 가졌다.

사간회는 출판을 30년 이상 해온 60대 이상 출판인들의 친목모임으로 현재 회원수는 70여명. 춘추 야유회를 비롯해 1년에 3, 4회 모임을 갖고 있다. 전 회장의 ‘지명’ 형식으로 선출되는 차기회장은 홍석우(탐구당) 사장이 맡게 됐다.

아야 할 사례로 그동안 국내출판업자들이 많이 언급해온 일본의 일판·동판이 아니라 유럽의 예들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그는 센트럴북하우스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사건을 피력했다.

김중수 사장은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본따 오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170여년에 걸쳐 정착시켜온 그 제도를 면밀히 연구라도 하여 우리에게 맞는 유통자동화를 이루자는 것이다”며, 그동안 우리는 좋은 사례를 잘 연구하기만 해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물론 도대체 유통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해본 연구자가 한 명이라도 있거나 했느냐”며 꼬집었다. 그의 지적처럼 “출판유통전문가를 키우자”는 것은 발제자들의 공통된 제안이었다.

예정시간 훨씬 넘겨가며 열면 토론

주제발표만큼이나 열기를 띠었던 토론의 자리에서 대전 대훈서점 김주팔 대표는 “유통합리화의 전단계로 ISBN과 POS제도가 준비되고 시행된 지는 벌써 7, 8년이나 됐다. 이제 ISBN을 부착하지 않은 책은 놓쳐 놓지 않고 세워놓아 진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또한 ‘서점대화’ 의견에 대해 이견을 보인 토론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서점대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전산화만 잘 돼 있다면 책 주문에서부터 소비자 공급까지 불과 한나절이면 되는 유통선진국 사례를 들며 ‘로지스틱스’와 ‘합리화’만이 출판유통의 살길임을 재삼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민간자본의 유통회사 ‘뿌리와 날개’를 차려 화제가 됐던 강영중씨는 이날 토론자로나와 “우리 출판서적업계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여 이 사업을 시작했고, 출판유통에 내 삶을 걸겠다”고 말해 모인 출판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는 “어떤 유통기구가 발족돼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출판유통의 ‘대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의 ‘협동조합’ 형태나 업계 ‘협업·공동화’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대의 조류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탁월한 경영 노하우를 지닌 유통전문가를 영입하고, 대주주 중심으로 경영을 단일화하여 이익창출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두영 전무는 “대형 유통기구의 현실성은 이미 온 출판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이제는 원론적인 주장보다 해결을 위한 구체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우리 출판유통의 문제는 소형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걸리버공화국’의 형태라며, 이같은 ‘군웅할거’를 하나로 합병·제휴하여 “상적활동은 따로 하더라도 물류활동은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등 유통을 대형화하되 기존 업체의 고유성을 지켜주는 방안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10분이나 초과, 사회를 맡았던 김경희 출판연구소 이사장이 가까스로 논의를 마무리짓는 등 이번 출판포럼은 출판인들이 공통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풀려는 자세를 보여준 보기도문 뜨거운 ‘논쟁’의 자리였다.

—정혜옥 기자

출판정보만의 특별한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1. 출판정보 기사검색 프로그램 디스켓
2. 월간 기사목록 데이터 디스켓
3. 신간보도자료 광고 게재
4. 긴급기사 팩스 서비스
5. 출판정보 보관용 바인더

지금 바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1권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 271-0494 FAX)271-0495 담당 : 김혜경

